

# “출가는 내 한평생 속박당하기 싫어 이루어진 일”

## <47> 유가의 이단자 탁오(卓午) 이지(李贄)거사

명대(明代) 중후기(中後期)에 양명학(陽明學)의 흥기에 따라 관료사대부들이 점차 불교, 특히 선학(禪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지(李贄: 1527~1602)와 원광도(袁宏道: 1568~1610) 두 거사이다.

양명학은 본래 송대 이학(理學)을 집대성시킨 주희와 동시대인인 육구연(陸九淵)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왕양명(王陽明: 1472~1529)에 이르러 크게 부흥해 명대 중후기의 사상계를 주도했던 사조이다. 그에 따라 흔히 '육왕(陸王: 육구연과 왕양명) 심학(心學)'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미 주희에 의해 완전한 '선학(禪學)'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조사선 사상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양명학은 상당히 송대에 사상적 정점을 이룬 조사선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지만, 그에 대한 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명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거사로서 이지 거사를 고찰해 본다.

이지 거사는 흔히 '유가의 이단자', 혹은 '모순과 갈등의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거사의 일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팽제청의 <거사전> 권43에 거사의 전기가 실렸으며, <석감계고락속집(釋鑑稽古略續集)> 등에 거사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

구 경정리(歐定理)에게 의탁해 생활했지만, 그가 죽자(1584) 다시 마성(麻城) 용담호(龍潭湖)에 머물며 절을 짓고서 생활했다.

만력 16년(1588) 거사는 유가에 대해 '이단(異端)'임을 자처하며 스스로 삭발하고 관복을 벗어던져 승려의 모습도 갖췄지만 정식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스스로 '출가'를 주장했지만, 평생 거사의 신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성에서 거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는데, 그 신분과 성별을 따지지 않았다. 특히 '여자들은 견해가 짧아도를 배울 수 없다'는 말에 대해 거사는 "사람에게는 남녀가 있고 견해도 역시 남녀가 있지만, 법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더욱 못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과부 등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사대부들이 거사를 '좌도(左道)'라고 비판했다. 거사는 웃으며 "내가 잡다운 좌도라면 바로 관(冠)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옛날에 벗었던 관복을 다시 입었다.

당시 어사 마경륜(馬經綸)은 자주 거사를 찾아와 <역경(易經)>의 뜻을 물었고, 거사를 스스로 삼아 지극히 예우해 황벽산(黃蘗山)의 북관(北館)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통주(通州)에서 장문달(張問達)에게 혹세무민했다는 죄목으로 탄핵 당해 옥에 갇히고,



그림 · 김홍인

게는 소멸되고 만다. 그렇다면 정과 해는 성불의 근원이고, 계는 또 정·해의 근원이 된다... 석가모니 부처는 성불 뒤에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본인의 계행이 한결 같았던 것은 대중이 다 아는 바이다. 만약 부처님이 '이런 계행이 헛된 것이고 계행이 부처에게 속박일 뿐'이었다고 말했다면 득도해 성불한 다음 계율을 깨고 파계해도 무방하리라. 절을 버리고 왕궁으로 돌아갔던들 안 될 게 무엇이었으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찢어진 가사를 걸치고 거둬 버릴때를 읊겨져있으니, 어째서 그리하셨을까?"

여기서 거사는 계행을 극도로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다른 모든 것은 '속박'으로 여기는 거사였지만, '계율'은 결코 '속박'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계라는 한 글자는 모든 오묘함의 관문이고, 파계라는 한 단어는 모든 재앙의 근원"이라고 지극히 강조했다.

거사의 불교사상은 기본적으로 이통현(李通玄) 장자의 <화엄합론(華嚴合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분서>권4에는 "화엄합론은 정밀하고 미묘하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여서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또 하나의 '회합'이라고 극찬을 했던 것으로부터 짐작된다. 그렇지만 <거사전>에서 거사가 '공종(空宗: 반야를 중시하는 종파에 귀의했음)을 밝히고 있고, 또한 <분서> 권2에서는 "즉심즉불(卽心卽佛)의 선사상을 논하고 있어 화엄을 바탕으로 반야와 조사선까지 두루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사는 <분서> 권4에서 "염불은 서방 아미타불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본다면 바로 서방에 태어남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견성(見性)이란 자성이미타불(自性阿彌陀佛)을 보는 것이다. 자성이미타불을 보았다면 바로 성불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자면, 거사는 송대 선종으로부터 출현한 '유심정토(唯心淨土)'의 사상과 유사한 정토관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거사는 당시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정주(程朱) 이학(理學)에 대하여 '거짓 도학(假道學)'으로 규정하고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뒤에 육왕 '심학'에서의 '이학'에 대한 비판과 조사선의 사상적 관계를 논하는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청대의 팽제청은 <거사전>에서 거사에 대해 평가기를, "내가 탁오 거사를 논하고자 살펴보고서 그 행적에 놀랐다. 그의 행적은 바로 세상의 병을 꾸짖기 위한 것으로, 거사는 실제로 스스로 행하였다. 거사의 저술을 읽고서는 감동을 받았다. 오호라! 거사는 근본을 알았구나. 거사는 출가했지만 계를 받지 않았으니, 다시 관복을 입는다고 해서 흠이 되겠는가? 그 격한 행적이 이와 같으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명대 전체적인 불교의 쇠퇴기에서 이지 거사는 독특한 행적을 통해 거사불교를 부흥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 김진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분서’ ‘장서’란 제목의 책부터 이단의 성격 엿보여

### 모든 것이 속박이라도 계율만은 속박 아니라 밝혀

기재돼 있다. 그에 따르면, 거사는 복건성 현주(泉州) 진강(晉江) 사람이다. 거사의 원래 임(林)씨였지만, 가정(嘉靖) 31년(1552) 향시(鄉試)에 합격하고 이(李)씨로 바꿨다. 자는 광보(宏甫), 이름은 재지(載贄)였으나 목종(穆宗)의 휘(諱)를 피해 '재(載)'자를 빼어 '이지'로 했고, 호는 탁오(卓午), 운릉(運陵)거사, 백천(百泉)거사, 탁오노자(卓吾老子) 등을 자칭했다. 거사는 하남(河南) 공성(共城)의 교유(敎諭)를 시작으로 관료생활을 했다. 남경 국자각 박사, 북경 예부(禮部)의 사무(司務), 남경 형부원외랑을 역임한 후, 운남(雲南)의 요안(姚安)에서 지부(知府)를 맡았다. 만력(萬曆) 16년(1588) 거사의 나이 54세에 요안의 지부를 사임하고 그대로 계족산(鷄足山)에 들어가 '용장(龍藏: 대승경전)'을 열람하며 몇 년간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불교공부에 몰입했다. 그 후, 어사 류유(劉維)에 의해 호북(湖北) 황안(黃安)으로 쫓겨 가 친

거사에게 원적(原籍)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했다. 이에 거사는 "내 나이가 일흔 여섯인데, 죽을지언정 어찌 돌아가겠는가?"라고 하며 칼을 빼앗아 자결했다. 마경륜이 예를 갖춰 통주 북문 밖에 안장했다.<거사전> 권43

이와 같이 거사의 일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는 거사의 사상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거사는 평생 동안 불교와 관련된 저술뿐 아니라 경학 역사 철학 소설과 회곡 등 다방면에 걸쳐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불교와 관련된 저술은 <화엄경 합론간요(華嚴經合論簡要)><만속장>권5, <반야심경제강(般若心經提綱)>, <정토결(淨土決)>, <만속장>권108 등이 있고, <장자해(莊子解)> 등의 도가와 관련된 저술과 <이탁오비점항명통기(李卓吾批點皇明通紀)> 등의 역사와 관련된 저술이 있다. 하지만 거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태워버려야 할

책'이라는 의미의 <분서>와 '묻어버려야 할 책'이라는 의미의 <장서(藏書)>가 있다. 거사의 책은 제목부터 이미 '이단'의 성격을 엿보게 한다. 특히 <분서>의 서문에는 "근래 학자들의 병폐에 깊숙이 파고 들어 그들의 고질병을 까발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우려는 것"이라 말해 '분서'라는 제목을 단 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거사가 출가한 이유를 <분서> 권4에서는 "너희들은 다만 이렇게 말한다. 출가해 승려가 되는 것이 성불하는 길이고, 그것만으로도 재가자들 보다는 훨씬 우월하다고 말이다. 지금은 나도 출가한 몸이지만, 설마하니 그것이 어찌 남보다 뛰어난지일까? 나의 출가에는 실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출가가 좋은 일이라고 여겨 출가한 것도 아니고, 또 출가하지 않으면 수도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었다. 설마

나니 집에 있다 해서 수도할 수 없었겠느냐? 나의 출가는 다만 내 한평생 남에게 속박 당하기를 싫어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거사의 '출가'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다. 이른바 결코 '속박 당하기 싫어함'으로부터 '출가'를 했음이 엿보인다. 아마도 거사의 안목에는 정식으로 수계(受戒) 받는 것조차도 '속박'으로 느껴져 스스로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거사는 '지계(持戒)'를 상당히 강조했다.

<분서> 권4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부처는 바라밀을 설파했다. 바라밀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계율을 준수하라는 지계도 그 중 하나이다. 부처는 계·정·혜의 세 가지 중에서도 계행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라는 한 글자는 정병 쉽게 말할 도리가 없다. 계에서 정이 생겨나고, 정은 해를 만든다. 해는 다시 계에서 출발하니, 해가 아니라면

##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히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정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애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경성에서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정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함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사주명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강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엔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폐격하여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